



힌츠페터 5·18 취재 행적 담은 영화 송강호 주연 '택시 운전사' 크랭크인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의 참상을 영상에 담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취재 행적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5·18 당시 독일 방송국의 일본특파원으로 근무하던 힌츠페터씨가 한국의 남쪽 도시 광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 택시기사의 도움 아래 학살의 현장을 취재한 뒤 해외에 긴급 타전하기까지의 실화가 영화의 소재다. 특히 힌츠페터씨와 함께 80년 5월 광주를 누빈 택시기사 역할을 맡아 극

을 이끄는 주인공에 배우 송강호씨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영화를 통해 5·18의 진실과 가치가 다시 한 번 조명되는 등 5·18의 전국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11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서 투병 끝에 숨진 힌츠페터씨와 그를 태우고 80년 5월 항쟁의 중심에 섰던 택시기사가 겪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Taxi Driver)'가 제작 중이다. 국내 최대 배급사 중 하나인 (주)쇼박스사가 투자하며 개봉시기는 확정되

지 않았다.
'고지전' '의형제' 등으로 유명한 장훈 감독이 연출하고 '설국열차' '변호인'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낸 송강호씨가 주인공인 택시기사 역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힌츠페터씨 역을 어떤 배우가 맡을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독일 제1공영방송의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힌츠페터씨가 5·18 현장을 취재·보도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2003년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할 당시 수상 소감에서 영감을 얻었다.



독일 방송국 특파원 근무 중 80년 광주의 참상 세계에 알려 택시기사와 항쟁 한복판에 선 '광주에서 사흘' 5월 본격 촬영



故 힌츠페터

가 숨을 거두기 전인 지난해 12월 그와 인터뷰를 하며 최대한 실화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했다. 또 장훈 감독 등 제작진은 최근 독일 현지에서 진행된 힌츠페터씨

의 장례식에도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지인들을 인터뷰했다. 이 자리에서 제작진은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관계자들에게 영화의 줄거리와 제작 배경, 주요 배역 등을 설명한 뒤 자료 제공과 제작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해의 촬영을 마치고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갈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5·18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추진 남북 교류사업 '올스톱'

北 예술단 문화전당 공연·에너지 마을·땅끝 협력 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의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이 추진중이거나 구상중인 대북 교류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교류·경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려 했던 북측 공연단 초청공연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개성공단 전남지역 입주업체들도 발이 묶였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문화예술단을 초청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광주남북교류협회를 통해 북한민족화해협의회에 북측 공연단 초청의사를 전달하는 등 활발하게 접촉했으나, 남북관계 급변으로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태양광을 이용한 북한 에너지마을 지원 사업은 아예 착수를 못하게 됐다. 이 사업은 북한 마을에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북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와 양곡교류도 보류해야 할 상황이다.
전남도는 올해 남북교류기금에서 3억원, 일반회계에서 2억원 등 모두 5억원의 예산을 마련, 함경북도와의 '땅끝 협력' 등에 나

실 방침이었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북한의 땅끝인 함경북도에 미역과 쌀을 보내는 '땅끝 협력' 대북교류사업, 함경북도 산모·영유아 및 불우아동 대상 인도적 지원, 통일부 주관 '대북 산림협력사업 기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거기에 올해는 체육교류까지 시도할 계획이었다. 전남도는 오는 2017년까지 이러한 남북교류에 사용할 기금 5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은 남북의 화해 속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이 모두 구상 단계로 가시화된 것은 없어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완도의 (주)흥익산업과 담양의 개성부천공업(주) 등 전남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흥익산업은 2005년 8월 개성공단에 입주했으며 김, 톳을 가공하는 업체다. 근로자는 402명, 매출액은 100억원에 이르며, 가공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개성부천공업(주)은 2008년 8월 입주했으며 전자기기용 와이어 하네스를 생산하는 업체다. 근로자는 468명, 매출액은 336억이다. /윤영기·윤현석기자 penfoot@



밭이랑 사이로 봄이 오는 소리 추위가 물러나 제법 따뜻한 봄날씨를 보인 11일, 취재용 드론을 통해 내려다 본 보성 회천면 울포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심기 위해 밭이랑을 만들며 비닐을 덮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절반 이상 새인물 공천"

총선 D-61 더민주·국민의당 광주·전남서 '혁신 경쟁' 예고

야권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러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신진인사 등용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중 몇 명이나 다시 의의도로 복귀할 수 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현역 물갈이 여파에 역대 어느 총선보다 높은데다, 두 당 모두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 확실시돼 현역의원들로서 입지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광주·전남 현역의원은 총 19명. 광주는 국민의당 6명(전정배·박주선·장병완·김동철·임내현·권은희 의원), 더민주 2명(강기정·박해자 의원)이다. 전남은 새누리당 1명(이정현 의원), 더민주 6명(김성곤·우윤근·신정훈·김영록·이윤석·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3명(주승용·황주홍·김승남 의원), 무소속 1명(박지원 의원)이다. 이 중 김성곤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나머지 18명은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이날 말 또는 내달 초까지 이들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몇 명이 1차 공천 관문을 통과할 지가 주목된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했던 역대 총선과 달리 본선 경쟁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4·13 총선 공천의 현역의원 교

체 비율과 관련, "17대 때 보면 초선이 굉장히 많았다. 늘 40~50%는 된다"며 "자동적으로 그 정도는 새 인물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하위 20% 현역 물갈이"와 관련해 현역 교체 폭을 그 이상 생각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질문에 "퍼센트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람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유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 9명, 더민주 8명으로 황금분할돼 있다"며 "어차피 절반 이상은 신인으로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두 당 모두 고강도 인적쇄신으로 현역의원 물갈이가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명품 혁신도시 도로는 '누더기' ▶6면
신 팔도유람-변산반도 마실길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명품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3년 3차년도] 경제의 물결을 세고만 미래가 달라집니다. 에너지신사업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감동의 에너지

한국전력의 손 끝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와 융합의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Smart Energy Creator, KEPCO

www.kepco.co.kr

Smart, Clean, Kind 한국전력공사